장일범의 '극장 없이는 못살아'

암스테르담 말러페스티벌처럼 긴 호흡으로

1888년에 문을 연 유서 깊은 암스테르담의 음악당인 콘세르트허바우에서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 페스티벌이 1995년 이후 30년 만에 다시 열렸다. 원래는 5년 전인 2020년에 이 페스티벌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펜데믹 때문에 드디어 올해 열리게 된 것이다. 원래 계획은 말러 교향곡 1번부터 미완성작인 10번 그리고 '대지의 노래'까지 11개의 작품을 5월 8일부터 18일까지 밤마다 공연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워낙 국제적인 클래식팬들의 열렬한 관심이 쏟아져 이 페스티벌은 이미 일년 전에 모두 매진되었고 페스티벌 측은 부랴부랴 저녁 레퍼토리와 같은 낮 공연도 만들어서 두 번씩 공연했지만 역시 모두 삽시간에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주최측은 1995년과는 다르게 콘세르트허바우 공연장 인근 본델 파크에 1500석 규모의 야외 텐트형 공연장(말러 파빌리온)을 설치해놓고 누구나 무료로 와서 공연을 감상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바닥도 완벽하게 닦아놓아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신경을 썼다. 그리고 네덜란드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등록만 하면 핸드폰이나 PC로 공연 라이브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를 공연장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 함께 즐길 수 있게 만든 점이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필자는 1995년부터 이 말러페스티벌에 가고 싶었지만 워낙 일찌감치 매진이 되어 "이번에도 못가는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양도표를 받아 말러 교향곡 9번, 8번, 10번과 '대지의 노래' 3개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었다.

어떤 분들은 "말러 페스티벌이 왜 말러의 주요 무대였던 빈이 아니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냐"고 의아해하며 질문한다. 이 엄청난 규모의 국제 페스티벌이 열리는 이유는 말러가 암스테르담을 1903년,1904년, 1906년, 1909년, 1910년까지 모두 5차례 방문해서 교향곡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그리고 연가곡 '죽은 아이를 그리는 노래'까지 공연한 데서 기인한다.

24세부터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맡아온 네덜란드의 젊은 천재 지휘자 빌렘 멩겔베르그는 말러가 20세기의 베토벤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초대해서 1903년에 처음 3번 교향곡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연 지휘를 하게했고 당시 1번 교향곡도 부탁하면서 그와 매우 친해졌다. 말러가 멩겔베르그를 '젊은 말러'로 생각할 정도였다.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3번을 처음 리허설한 말러는 "내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나의 호흡을 멈추게 했다. 정말 최고의 오케스트라이며 정말 준비가 잘되어있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첫 공연이 끝난 후 "어젯밤 연주가 정말 숭고했다"고 부인 알마에게 편지를 썼을 정도로 말러는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와 홀을 마음에 들어했던 것이다. 빈으로 돌아간 말러가 멩겔베르그에게 쓴 편지에서 "난 두 번째 음악의 고향을 암스테르담에서 찾은 것 같소"라고 했을 정도로 암스테르담은 말러의 유럽에서 두 번째 집이 되어주었다.

18일 마지막 날 공연에서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8번 천인교향곡을 클라우스 매켈레가 지휘하기 전 한 부인이 등장해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 말러와 알마 부부의 친손녀가 아닌가! 그녀는 정말 "이 오케스트라야말로 말러가 가장 좋아한 오케스트라다"며 말러 페스티벌이 암스테르담에서 왜 열리는 가에 대한 이유를 증명해 주었다.

말러가 1911년 50세를 일기로 빈에서 심내막염으로 세상을 떠나자 슬퍼하던 멩겔베르그는 오랜 준비 끝에 1920년 암스테르담에서 첫 말러 페스티벌을 열었다. 두 번째 페스티벌은 1995년 명장 리카르도 샤이가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를 맡고 있던 시절 75년만에 다시 열렸다. 샤이는 물론 사이먼 래틀, 리카르도 무티라는 거장 지휘자들과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베를린필, 빈필, 구스타프 말러 유스 오케스트라가 말러 교향곡들을 연주했다. 금년에는 5월 8일부터 시작되었고 말러가 세상을 떠난 날을 기념하며 5월 18일에 끝났다.

이반 피셔와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키릴 페트렌코와 베를린필 등의 말러교향곡 전곡 연주외에도 말러 가곡을 세계의 다양한 성악가들과 함께 연주했는데 최초로 시카고심포니와 NHK심포니 등 미국과 아시아(일본)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다는 점도 말러 페스티벌을 글로벌화하려는 의도를 읽게 한다.

1920년에 시작해서 2회 페스티벌을 1995년에, 3회 페스티벌을 2025년에 치른 암스테르담 콘세르허바우 4회 행사는 언제 치러질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 이런 오래 준비하는 긴 호흡의 페스티벌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음악평론가〉

의료칼럼

생명 살리는 '고압 산소치료'의 의학적 가치

이 창 준
퍼스트이비인후과 원장

'산소는 생명 그 자체다.' 이 말이 현대 의학에서 실제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바로 '고압 산소치료'가 그 주인공이다. 고압 산소치료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 상태로 100% 순수한 산소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대기압의 2~3배에 달하는 압력 환경에서 호흡하면 산소가 혈액 내 혈장에 직접 녹아들어 일반 산소 흡입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깊은 조직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된다.

초기에는 주로 잠수병이나 일산화탄소 중독과 같이 긴급하고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됐으나 최근 들어 당뇨병성 족부궤양, 방사선 치료 후 조직 괴사, 심각한 화상과 난치성 상처 등 그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특정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정도로 그 효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치료법이며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널리 시행 중이다.

고압 산소치료가 주목받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조직 치유 능력 때문이다. 산소는 세포 재생과 염증 억제,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이다. 손상된 조직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면 상처 회복이 빨라지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진다. 특히 수술 후 회복이 더딘 환자, 고령자,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고압 산소치료는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최근에는 돌발성 난청 환자에게도 고압 산소치료가 의미 있는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나타나는 청력 저하로, 발병 후 72시간 이내 신속한 치료가 중요하다. 고압 산소치료는 내이의 미세 혈류 개선과 청신경 부종 감소 효과가 있어 청력 회복 가능성을 높여준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또한 이 치료를 권장 보조치료로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되는 피로감, 두통, 집중력 저하 등 '롱코비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사이에서도 고압 산소치료가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이 치료 후 증상 개선을 경험한 사례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물론 이 치료는 단독 요법이 아닌 수술, 약물치료, 재활치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접근할 때 더욱 효과적이다.

고압 산소치료는 고가의 장비와 전문적인 시설 기준을 필요로 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쉽게 제공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치료의 필요성과 유효성이 의료 현장에서 점점 널리 인식되고 장비가 소형화 되면서 더 많은 병원과 클리닉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다.

고압 산소치료는 단순한 산소 흡입이 아니다. 이는 산소를 약처럼 활용하여 생명을 살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학적 치료다. 의료기술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고압 산소치료가 더욱 보편화되어 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6·3 선거 공감' 기고 〈5〉

참정권과 공정선거의 가치에 대하여

정 경 미
참배움터 대표

민주주의는 시민의 힘으로 움직인다. 선거는 그 힘을 드러내는 가장 분명한 방식이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동력이다. 투표는 단지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지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행위다.

이런 점에서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이 가지는 가장 소중한 권리다. 그러나 그 권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참정권을 억압당한 이들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 역시 보통선거가 실현되기까지 수많은 역사적 과정을 거쳐야 했다. 3·1운동, 4·19혁명, 6월 민주항쟁 등 시민들의 헌신적 참여는 '모든 국민의 평등한 정치 참여'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해 왔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참정권은 단지 헌법 조문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피와 땀, 연대와 희망이 만든 역사적 성취다. 그렇기에 선거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정치에 관심을 갖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것은 역사에 응답하는 것이며 나와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행위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은 단순한 '투표자'가 아니다.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후보자와 정책을 비교 평가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성숙한 주권자'다. 선거 참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참여 이후에도 정책을 감시하고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가 민주주의를 실질화하는 길이다.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대통령 선거가 오늘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선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이 주권자임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선거의 의미가 반복되는 과정 속에 퇴색하거나 정치 혐오와 불신의 분위기 속에 그 가치를 상실하는 현상도 심심치 않게 목격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선거를 해야 하며 참정권은 왜 그렇게도 중요한 것일까? 더불어 선거의 공정성은 어떤 이유로 민주주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일까?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 정치체제다. 여기서 주인의 권한을 구체화하는 핵심 장치가 바로 선거다. 즉 참정권은 단순히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권력의 행사다. 이 권리가 제한되거나 형식적으로만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외양만 남기고 속을 잃게 된다.

역사는 이를 분명히 말해준다. 참정권을 제한받았던 여성, 노동자, 식민지 민중들은 참정권의 확장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 왔다. 오늘 우리가 투표소에서 쉽게 행사하는 한 표는 그들의 희생과 투쟁 위에 쌓아 올린 권리다. 그러므로 그 한 표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선거제도는 '공정성'이라는 기둥 위에 서 있어야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세력에 유리하게 선거가 설계되거나 선거 관리가 편파적이라면 시민의 의사는 왜곡되고 결국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기구의 투명성과 신뢰는 민주주의의 기초 체력을 구성하는 요소다.

오늘날 선거의 공정성은 단지 개표나 투표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의 유통, 여론조사의 왜곡 등도 모두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선거 환경 속에서 '공정성'을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더 공고히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감시, 그리고 끊임없는 제도적 갱신 위에 존립한다. 투표소에 가는 그 길은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길이 공정해야 우리의 민주주의는 건강할 수 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사회의 가치를 선택한다. 공정한 선거와 온전한 참정권 보장은 단지 제도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에 살고 싶은가에 대한 물음이자 답이다.

社 說

사전투표 시작…압도적 참여로 주권시대 열자

6·3 조기 대선의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외투표는 끝났지만 내국인을 상대로 한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소는 광주 96곳, 전남 298곳을 포함해 전국 3568곳에 설치돼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올해부터 바뀐 점은 투표소 내 돌발·소란 행위를 예방하고 선거인과 투표 관리 인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정복 경찰관을 배치한 것이다. 12·3 내란세력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부정선거론인데 사전투표부터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은 최근 들어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정작 김문수 후보는 어제 유세 현장에서 "사전투표 부정 적발하면 완전히 판 뒤집을 수 있다"는 이중적인 발언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패배에 대비해 밑자락을 까는 비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의 대안으로 2013년 도입한 이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시스템으로 공인받았다. 각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인들이 선거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없고 대법원도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투·개표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사전투표제에 대한 공신력은 투표율에서도 확인된다. 2017년 19대 대선에선 26.06% 이던 것이 2022년 20대 대선에선 36.93%로 급등했다. 광주·전남 유권자들의 사전투표 참여율은 특히 높아 20대 대선에서 광주는 51.45%, 전남은 48.27%로 전국 1·2위를 기록했다.

이번 21대 대선은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만큼 내란세력 심판이 될 것이다. 5·18 당시 비상계엄을 경험한 광주는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건져올린 도시다. 사전투표부터 압도적인 참여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한다.

3대 국립 문화시설 유치로 '예향 광주' 완성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으로 불려왔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건립된 이후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광주비엔날레와 아시아 문화 창·제작소인 ACC까지 나름의 소프트웨어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예향과 문화수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광주시가 국립현대미술관·국회도서관·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3대 국립 문화시설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쏟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술관·박물관·도서관 등 문화 3종 세트가 호남의 수도 광주에 들어서야 하는 명분도 충분하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경우 수도권에만 4곳, 중부권 2곳, 영남권 2곳 등 권역별로 분관이 2개 이상 있지만 호남권에는 아예 없다. 광주시가 이미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사들였고 30년 역사의 광주비엔날레가 있어 여건은 충분하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역시 광주학생독립운동부터 5·18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도시로 광주만한 곳이 없다. 옛 광주교도소가 최적의 장소이자 다크투어리즘의 산실로 활용이 가능하다. 국회도서관은 수도권·영남권·세종시 등 권역별로 있지만 호남권에만 없어 광주정신과 부합하는 민주·인권·평화 관련 자료를 광주에 집적화 할 명분이 있다.

3대 국립 문화시설 유치에 더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가칭 '아시아문화조성청'을 설립해 ACC의 창작과 공연기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콘텐츠융합산단을 조성해 광주의 미래 먹거리로 삼아야 한다.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콘텐츠를 접목하면 미래 먹거리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3대 국립 문화시설을 유치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디지털콘텐츠를 생산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면 청년들이 광주를 떠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예향 광주'의 완성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모아가자.

無 等 鼓

무히카 대통령

일본 다큐 감독 다베이 카즈마는 첫 아이의 이름을 '호세'라고 지었다. 얼마 전 타계한 호세 무히카 전 우루과이 대통령의 이름에서 따 온 것이다. 우루과이에서의 첫 만남 후 여러 차례 무히카 대통령을 취재했던 카즈마는 그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아 다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일본으로'(2020)를 제작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4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부터 당신에게'라는 그림책도 나왔다. 무히카 대통령이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한 연설 내용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쓴 그림책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은 영어로도 번역됐고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무히카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우루과이에서 그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지만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애도하고 전 세계가 그를 기억하는 건 '아름다운 삶'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군사정권에 맞서 무장 게릴라 활동하며 14년 간 옥살이를 했던 그는 대통령 재임기간(2010~2015) 동안 소득 90%를 빈곤퇴치 단체에 기부하는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다. 또 대통령 관저를 노숙자 등에게 내주고 허름한 집에서 출퇴근했다.

다큐에 등장하는 그의 집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남루했다. 출퇴근 때 직접 운전하는 20년도 더 된 1987년형 하늘색 폴크스바겐 비틀도 인상깊었다. 노숙자를 위한 주택 건설 현장에서 대통령을 만난 아이들은 그를 '페페'(할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갔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에게선 인자함이 넘쳐났다. 무히카 대통령의 모습에선 남겨진 재산이 100달러(14만원)밖에 되지 않았던 프란체스코 교황도 오버랩됐다.

오직 '국민'만을 보고 일해온 무히카 대통령을 떠올리며 2025년 대한민국을 생각해 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악행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모습에서 참담함을 느낀다.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국민만을 생각하는, 국민의 대통령을 뽑는 데 신성한 한 표를 던져야 할 것이다. /김미은 여론매체부장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24
정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48 여론매체부 220-0661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제2사회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 220 0661 / 팩스 062 222 4918 / e메일 opinion@kwangju.co.kr